52세 사이클 김지연 장애인AG '첫 금'
광주 박진철·김영건·남기원 탁구 '금 3'

핸드사이클 이도연 도로독주 2연패
41세 전민재 여자육상 200m서 금

텐덤사이클 김지연(52·제주장애인사이클연맹)이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김지연은 지난 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센툴 국제 서킷에서 열린 여자시각 개인 도로독주 경기에서 30분 49초 522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파일럿(길잡이) 노효성(34·제주)과 함께 달린 김지연은 2위 말레이시아 모흐드 자이스(30분 57초 697)를 8초 이상 앞서는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쳤다.

26세 때 중심성 망막증으로 오른쪽 시력을 잃은 그는 2006년 시각장애인복지관 텐덤사이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스포츠에 입문했고 뒤늦은 나이에 만개했다.

핸드사이클 이도연(46·전북도청)은 같은 장소에서 열린 여자 개인 도로독주(H2-4) 결선에서 21분 16초133의 기록으로 2연패를 차지했다.

26분 07초 656을 기록한 왕계현(50·서울시청)이 2위를 달리며 한국 사이클 대표팀은 금·은메달을 휩쓸었다.

이도연은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에서 노르딕스키 선수로 참가했는데, 반 년만에 주종목으로 복귀해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

탁구 종목에서도 메달이 쏟아졌다. 박진철(36·광주시청)은 남자단식 결승(장애등급 TT2)에서 차수용(38·대구시청)을 세트스코어 3-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TT4의 베테랑 에이스 김영건(34·광주장애인탁구협회)은 결승에서 만난 후배 김정길(32·광주시청)을 3-2로 누르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TT1의 남기원(52·광주시청)도 쿠웨이트의 하메드 라티프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서수연(32·광주시청), 이미규(30·서울직장경기운동부), 서양희(32·대구시청), 김기영(48·대구시청)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볼링의 김정훈(43·경기도장애인체육회)은 볼링 혼성 개인전(스포츠등급 B1)에서 6게임 합계 955점으로 1위에 오르며 장애인아시안게임 볼링 개인전 3연패를 달성했다.

2010 광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2관왕(개인전·2인조),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에서 3관왕(개인전·2인조·단체전)에 등극했던 김정훈은 대회 개인전 3연패 금자탑을 쌓았다.

여자 육상 간판 전민재(41·전북장애인체육회)는 육상 여자 200m(장애등급 T36) 결선에서 31초08로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결선에 나선 8명의 선수 중 최고령이었다. 중국 왕단(17)과는 24살 차이였다. 그러나 전민재는 매서운 질주로 여유롭게 우승을 차지했다.

다섯 살 때 뇌염으로 뇌병변 장애를 얻은 뒤 체육 선생님의 권유로 육상을 시작한 전민재는 2008년 베이징 대회 200m에서 4위로 이름을 알렸고, 2012년 런던·2016년 리우 2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연합뉴스

9일 오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와바랏 보고르 센툴 국제 서킷에서 열린 2018 장애인아시안게임 사이클 로드레이스 경기. 한국 김지연(앞)이 노효성 가이드와 함께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현지시간) 핸드사이클 여자 개인 로드레이스 독주(H2-4·40km) 결선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도연이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하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현준 vs 황의조
둘 다 잘 아는 벤투의 선택은?

석현준

황의조

"석현준은 포르투갈에서 오래 뛰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황의조는 아시안게임에서 분석해 파악돼 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지난 8일 석현준(27·랭스)과 황의조(26·감바 오사카)에 대해 "둘 다 잘 알고 있다. 분명히 서로 다른 스타일이다. 두 선수의 스타일을 살려서 경기를 뛰게 하겠다"고 밝혔다.

벤투 감독은 지난 1일 무릎 부상으로 전열에서 탈락한 '벤투호 1기 공격수'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대신 '그라운드의 방랑자' 석현준에게 2년 만에 태극마크를 선물했다.

석현준은 19살이던 2010년 9월 이란과 평가전에서 생애 첫 대표팀 발탁과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석현준은 2015년 8월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고, 그해 9월 라오스와 2018 러시아월드컵 2차 예선 G조 2차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꽂았다.

석현준은 슈틸리케호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A매치 10경기를 뛰면서 4골을 뽑아냈지만 2016년 10월 카타르와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3차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대표팀과 작별했다.

하지만 포르투갈 무대에서 활약한 석현준을 알고 있는 벤투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잡응면서 2년 만에 '컴백홈'을 외칠 수 있었다.

황의조도 석현준과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황의조는 2015년 9월 처음 슈틸리케 감독에게 발탁됐고, 신태용 감독이 지휘봉을 이어받은 이후 2017년 10월 모로코 평가전을 마지막으로 대표팀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황의조는 와일드카드로 나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9골로 득점왕을 차지하며 '제2의 전성기'를 선언했고, '벤투호 1기'에도 발탁돼 원톱 스트라이커로 점검받고 있다.

A매치 경력만 따지면 석현준(11경기 4골)과 황의조(13경기 1골)는 큰 차이가 없지만 특징은 완전히 다르다.

석현준은 최전방에서 우월한 피지컬을 활용해 몸싸움을 펼치며 제공력을 활용해 득점을 따내는 능력이 좋다. 황의조는 정확한 슈팅과 빠른 터닝으로 수비수를 따돌리는 동작이 좋다.

두 공격수의 장단점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벤투 감독이 10월 두 차례 평가전에서 누구에게 미소를 지을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호날두·메시·모드리치…축구의 제왕은 누구?

발롱도르 후보 30인 포함…12월 3일 발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와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가 '축구의 제왕' 자리를 놓고 다시 한 번 격돌한다.

발롱도르를 주관하는 프랑스풋볼은 9일 올해 부문별 후보들을 발표했다.

남자 후보 30명에는 지난 10년간 다섯 차례씩 발롱도르를 나눠 가진 호날두와 메시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이들을 제치고 지난달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선수로 뽑힌 모드리치도 30인에 포함됐다.

크로아티아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 레알 마드리드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끈 모드리치가 FIFA 올해의 선수에 이어 발롱도르에서도 '메날두' 독식을 깰지 주목된다. 모드리치를 포함해 개러스 베일과 이스코, 카림 벤제마 등 모두 8명의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발롱도르에 도전한다.

러시아 월드컵 우승팀인 프랑스는 폴 포그바(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앙투안 그리에즈만(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 라파엘 바란(레알 마드리드) 등 7명의 후보를 배출했다.

음바페는 21세 이하 선수를 대상으로 올해 신설된 코파 트로피의 유력한 수상 후보로도 꼽힌다.

역시 올해부터 시상하는 여자 발롱도르 후보 15명도 함께 발표됐다. 올해를 포함해 모두 6번 FIFA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브라질 출신 마르타(올랜도 프라이드)와 일본 구마가이 사키(리옹) 등이 포함됐다.

발롱도르 수상자는 오는 12월 3일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된다. /연합뉴스

평창올림픽 619억 흑자…최소 비용으로 경제올림픽 실현

지난 2월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패럴림픽이 619억원의 흑자를 달성했다.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3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IOC 위원들에게 평창올림픽의 성과와 재정, 올림픽 후 관리와 관련한 최종 마무리 보고를 했다.

이 위원장은 "IOC와 정부의 지원, 적극적인 기부, 후원사 유치, 지출 효율화로 균형재정을 넘어 현재까지 최소 5500만 달러(약 619억 원)의 흑자를 달성해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낸 경제올림픽을 실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창조직위는 재정 부분에서 애초 2억 6600만 달러(약 3000억 원)의 적자올림픽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했다"고 덧붙였다.

평창조직위는 잉여금으로 스포츠 진흥과 발전을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재단을 설립을 위해 정부와 강원도, 조직위가 재단의 사업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또 평창올림픽 경기가 열린 12개 경기장을 경기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며 활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경기장의 경우 중앙정부와 강원도가 관리·운영비 부담비율 등을 조율 중이라고 IOC에 설명했다.

아울러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훈련장으로 경기장을 활용하도록 국제스포츠연맹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평창조직위원회가 모든 면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올림픽을 개최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IOC는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인정하고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IOC 몫의 잉여금을 평창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해외 게재불가

10월 13일(토)

▲**광주kj산악회** 10월 13일(토) 경남울산 영남알프스 "신불산 억새산행", 염주체육관 06:30, 건강관리협회 06:35, 돌고개 06:40, 광주역 06:55, 문예후문승강장 06:55, 비엔주차장 07:00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010 7794 6920

▲**광주호산회** 10월 13일(토) A코스달마산 둘레길 B코스 달마고도 2,3코스, 07: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8:00 롯데백화점, 08:15 문화예술회관 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010 4621 2166, 010 6702 9796

▲**광주산가족산악회** 10월 13일(토)~14일(일) 영덕 블루로드길&울진 금강소나무숲길 트래킹 산행, 염주체 05:00, 대인광장 05:20, 동광주홈 05:30 ※다음카페 광주산가족산악회 ☎010 6886 9106

10월 14일(일)

▲**광주산사모산우회** 10월 14일(일) 강진 만덕산, 염주 모아레포츠 입구 06:30,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앞 07:05, 비엔날레주차장 윗길건너 07:20, 문화예술회관 후문앞 07:30 ※다음카페 광주산사모산우회 ☎010 3603 8370, 010 3606 8081

▲**광주산친구산악회** 10월 14일(일) 영남알프스 신불산,영축산, 염주동 체육관 정문 06:00, 에스엘병원 06: 05, 월산동,오민석 신경외과 06:08, (구)남구의회 맞은편 06:10, S-OIL주유소(농성) 06:15, 신세계백화점 육교옆 06:20, 문예회관 후문 06:25, 비엔날레주차장.도로변 06:30 ※다음카페 광주산친구산악회 ☎ 010 6462 5014

▲**광주자연보전답사회** 10월 14일(일) 신불산(1159m 경남울산시) 억새산행, 염주체육관 05:40, 무등경기장 06:00, 동광주홈플러스 06: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010 3666 3291, 010 2663 0304

10월 17일(수)

▲**광주청록산악회** 10월 17일(수) 경남 창령 화왕산(756m)-억새산행,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6:50, 교직원공제회관 07:00, 예술회관후문 07: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7: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0월 20일(토)

▲**광주호산회** 10월 20일(토) A코스치악산 비로봉 B코스 세렴폭포, 05: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6:00 롯데백화점, 06:15 문화예술회관 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10월 21일(일)

▲**광주새무등산악회** 10월 21일(일) 충남 보은군(속리산 문장대1052m), 부일공업사 07:40, 광주역 08:00, 예술회관후문경유 08:10 ※다음카페 광주새무등산악회 ☎010 3616 6300, 010 3901 5667

▲**빛고을무지개산악회** 10월 21일(일) 광주시 화담숲, 06:00 염주체육관, 06:20 학동.증심사입구지하철역 3번출구, 06:40 광주역, 06:45 문예회관후문, 06:50 동광주웨딩프라자 ※다음카페 빛고을무지개산악회 ☎010 3620 2002

▲**광주금당산악회** 10월 20일(토)~21일(일) 강원도 설악산 산행 및 삼척 바다향기길 트레킹, 20일(토) 봉선동 롯데마트앞 05:10, 진월동 식자재마트앞 05:20, 염주체육관 05:30, 한국병원앞 05:40, 문예회관 후문 05: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6:00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10월 24일(수)

▲**광주청록산악회** 10월 24일(수) 충북 제천 월악산(1097m), 백운로타리타이어뱅크앞 06:50, 교직원공제회관 07:00, 예술회관후문 07:10, 동광주진입로승강장 07:20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010 8612 4504, 010 3000 1134

10월 27일(토)

▲**광주호산회** 10월 27일(토) 해파랑길17코스, 05: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 06:00 롯데백화점, 06:15 문화예술회관 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10월 28일(일)

▲**광주자연보전답사회** 10월 28일(일) 소백산 자락길 제1,2,3코스, 염주체육관 05:40, 무등경기장 06:00, 동광주홈플러스 06: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답사회 ☎010 3666 3291, 010 2663 0304

11월 18일(일)

▲**빛고을무지개산악회** 11월 18일(일) 창원 저도, 06:00 염주체육관, 06:20 학동.증심사입구지하철역 3번출구, 06:40 광주역, 06:45 문예회관후문, 06:50 동광주웨딩프라자 ※다음카페 빛고을무지개산악회 ☎010 3620 2002

光州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1관	베놈
2관	암수살인
3관	협상
4관	베놈
5관	베놈
6관	암수살인
9관	안시성
7관 씨네커플	곰돌이 푸 다시 만나 행복해, 더 넌
8관 씨네커플	암수살인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공연예술축제 '그라제'	10.10(수)~21(일) 광주문화예술회관
11시 클래식 산책 남성팝페라 로맨스 그레이	10.16(화) am 11: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여행 스케치 '가을 소풍'	10. 31(수) pm 7:3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광주문화예술회관 특별기획 당 타이손 피아노 리사이틀	11. 7(수) pm 7:30 광주문예회관 대극장